

뉴질랜드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기간 : 2010년 7월10일부터 2010년 10월 2일 까지

참가자 : 청주 개신초등학교 6학년9반 **이유진**

이 현장 체험 보고서는 청주 개신초등학교의 이유진 학생이 위의 기간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초등학교에서 1팀의 스쿨링을 한 후에 쓴 현장학습 체험 보고서로 학교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유진이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 하기 위해 유진이가 쓴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게시합니다. 유진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유진이의 동의를 얻어서 유학큐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 NETBALL(sports time) 스포츠타임



매주 월요일마다 남자들은 주로 럭비에 여자들은 주로 넷 볼에 또 다른 남녀 아이들은 하키를 하게 된다. 넷 볼은 사진에 보이듯 C(center), G A, G K 등 7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주로 C 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끔마다 주변의 학교들과 모여 경기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 학교가 전체에서 두 팀 다 이기게 된다.

한국 학교에 비해서 정말 많이 활동적이라 많이 부럽기도 하다. 럭비경기용 운동장. 넷 볼용 두 곳 하키용 축구용 솔직히 학교보다는 활동 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넓고 많다 항상 넷 볼 즉 스포츠타임이 될 때마다 생각 나는 것이 있다. 여긴 격려라는 것이 몸소 실천되는 곳이라는 것. 항상 내가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골킥(골을 넣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골을 못 넣어도 항상 웃어주고 불안해 해도 항상 웃으며 "cheer up!"이라고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된다.



넛볼 선수들로 항상 나를 격려해 주고 나의 best friends 들도 있는 사진. 항상 고마워해야 할 그런 친구들이다.

2. 쉬는시간, 점심시간



항상 오후 10 시 20 분에 벨이 울린다 그러면 뉴질랜드 학교는 모두 일층 즉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벨이 울리면 가차없이 교실 밖으로 내쫓(?)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반 앞에 있는 곳에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과자를 먹고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고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때때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혹은 비가 오면 벨이 한번 더 울리게 되는데 그 시간부터는 교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fili, simran 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한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간식 시간.

내가 좋아하는 까닭은 '단지 쉬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나서 한국마냥 나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답답하게 뛰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보다는 자유롭게 항상 밖을 내다보면 드넓은 잔디밭이 보이는 그런 탁트인 환경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다.

한국에서는 항상 교실 학원 집. 공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환경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자유로운 환경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든다.

어서 우리 한국도 이런 자유로운 환경 속 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오클랜드 학교 소개



여기가 우리학교 운동장 더 넓어서 내 사진기를 가지고는 세컷을 찍어야 겨우 다들어올 정도의 크기다. 옆에서 환호하는 '크리스트바'라는 친구. 항상 쉬는 시간 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항상 볼때마다 표정이 웃겨 웃고는 한다.

여기가 play ground 놀이터인데 사진만으로 보면 어쩌면 뉴질랜드의 학교는 '놀이 위한 학교'라는 말이 맞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하지만 항상 한국의 학생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학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한다.

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 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놀기 위해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재빨리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 항상 뛰는 것이 몸에 베어 있어서 단순히 한국마냥 '수련회'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여기는 항상 수련이란 단어보다는 항상 학교에서 뛰어놀고 일주일에 한번 수업시간마다 큰 운동장을 한바퀴 뛰다보면 공기가 너무 좋고 상쾌해서 능률도 오르는듯한 기분이 든다. 수업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뛸수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정말 뉴질랜드는 한국의 교육적인 환경보다는 '놀기위한 학교'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것 같다.

그렇다고 공부를 다 배우지 않고 놀기만 해서 우리보다 바보 같다는게 아니라 단지 한국은 빠르게 뉴질랜드는 느리게 배우는 것 뿐 하지만 개념만은 뉴질랜드가 훨씬 튼튼하고 정확성도 뉴질랜드가 한수위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4. Gymnaitc 시간



우리는 항상 매주 수요일 gym 이라는 주제로 뒀틀넘기. 평균잡기 앞구르기 뒤구르기 등 4 가지의 기계 체조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을 뽑아서 또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여기는 다른 학교와 한달에 한번쯤은 모여서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이 또 한번 부럽다.

여기는 인터반(중학교)를 들어갈 때 선수로 뽑히면 인터반에서의 활동을 유지하며 그룹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여기서부터

자신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또 한번 부럽다. 나도 정말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러워만 하는 것 같다.



남자들은 가끔 보면 놀러 나온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반대로 여자들은 정말 기계체조 선수마냥 아니 오히려 더 잘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해서 나의 부러움을 한번 더 사버린다.

요번에도 역시 또한번 모여서 경쟁을 하였다 이렇게 직접 체육관을 각 학교에서 지어서 돌아가면서 시합을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아까 내가 말한대로 수련이란 개념이 필요 없다. 학교 생활이 수련이니까.

5. 크라이스트 처치 여행



지금부터는 크라이스트 처치의 사진으로 이동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줌 되는 그런 학교이다 처음보는 순간 나는 너무 웅장해서 성인줄만 알았다. 고등학교! 이 학교는 뒤편에도 많은 체험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재능을 찾을때까지 재능을 찾게해 줄 그런 시설만 갖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재능이라.. 나 또한 뉴질랜드의 이러한 환경들의 보며 나의 재능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았다.

사진과 같이 모든 학교는 저것보다 더 넓은 잔디밭을 갖고 있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밀포도사운드.

눈사태가 하루에도 수백 번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관광지의 도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신기할 따름이다.

눈사태가 일어나는 까닭은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비가 올때 이곳은 눈이 오게 된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는 조금씩 따뜻하기도 하다가 눈이 오기도 하는 그런 어설픈 날씨였기에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아 결국 밑에 있는 눈까지 함께 바닥으로 같이 끌어 내린다. 그러면서 눈사태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가장 놀라워하는 점은 정말 관광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그대로 보존되고 많은 장사꾼들이 없이 정말 필수요소만 갖추고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밀포도 사운드가 너무 놀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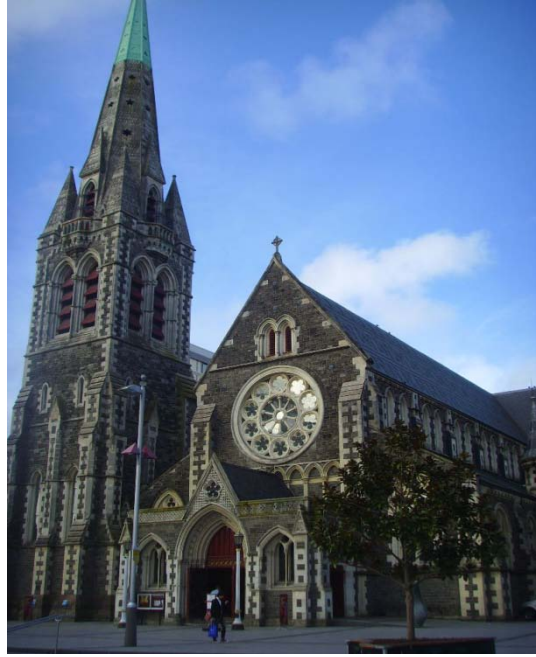
뉴질랜드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나는 이곳의 형태보다는 자연그대로 보존된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멋진 유람선을 타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구경한 밀포도사운드의 밑부분!!! 너무 너무 멋있었다. 물개도 봤다. 하지만 돌고래와 펭귄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동물원에서 봤으니깐! 눈이 녹으면서 물줄기를 형성하는데 이것 또한 자연모습이여서 너무 아름답다.



한쪽의 그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의 9 월쯤 되야만 볼수 있는 절경이다. 눈덮인 산과 한쪽의 숲과 잔잔한 물 많은 새들의 쉼터 이 모든게 한 장의 사진에 표현되어 있는 곳이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볼때도 진한 감동으로 오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한편의 감이 몰려오는 곳이다.



아마 이곳은 얼마전 지진 때문에 한국의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이 든다.

크라이스트처치가 생성 되기 전 중심부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대성당이다 내부의 모습도 굉장히 웅장하다 저 윗부분만 구리로 되어 있는 까닭은 항상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항상 지진 때 마다 윗부분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리로 바꾼 이후로 저부분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한다.



대 성당 앞에서부터 시내 한바퀴를 구경 시켜주는 전철이다. 관광용이기 때문에 시내구경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너무나도 신기했다. 요즘은 박물관에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볼 수 있는 전철이기도 하겠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처음 봤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항상 오후까지는 운영되기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운전사께서 멈추어 서 주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내가 가장좋아하는 파크로 엘버트 파크라고 불린다.

옆쪽은 대학교가 있는데 정말 '도시속의 정원'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항상 새들은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먹는데 정말 많이 모여든다.

분수대까지 있어 공기 좋고 고요하고 잔디밭으로 깔려있기 때문으로 너무 평화롭고 내가 도시 속에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너무 좋다.

5. 뉴질랜드에서 느낀 점

내가 여기서 정말 소중한 두 가지를 배웠다. 정말 평소의 공부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한 가지는 서로 서로 협동심과 하나는 실천하는 법. 보물보다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나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말을 잘 못해도 알아들었던 보물보다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들. 또 다른 하나는 항상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선생님.

반대로 잃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해 버려서 협동심을 키우지 않았던 나 자신의 스스로 하는 외톨이 같은 생각

두 번째는 조금만 잘해도 나도 모르게 우쭐해 버렸던 자만감.

정말 소중한 걸 얻고 소중하지 않아서 내가 한번쯤 잊고 싶었던 알지만 물리칠 수 없었던 자만감과 외톨이 같은 생각을 잃어 버렸다.

나는 솔직히 두 가지의 생각을 잃어 버렸어도 소중한 것 네 가지를 얻었기에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던 나에게 처서학교라는 곳에서 나에게 스스로 사는 방법과 낯선 곳의 정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정말로 3 개월 이란 시간동안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귀중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보물 네 가지를 얻어갔기 때문에 나는 어디보다 뉴질랜드가 기억에 남을 듯 하다.

나의 머릿속 한구석에 남아 정말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듯 하다 쓰고 싶은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나지만 귀중하고 소중했던 나의 체험학습을 마치려고 한다.